

	보도자료 (2019. 6. 13 목)	
	국회미래연구원 http://www.nafi.re.kr (02) 786-2190	

미래의 직업 전망 책 출간

“직무중심으로 직업이 재편되니
융합능력과 미래 문해력 (future literacy)을 갖추어야”

국회미래연구원(원장, 朴進)은 단행본 “미래의 직업전망”을 출간하였다. 이 책은 미래의 직업선택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밝히기 위해 준비되었다.

과학자, 방송콘텐츠 제작자, 초중고 교사, 농업인, 의사, 판사 그리고 마케터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각 직업군이 어떻게 양적·질적으로 변화할 것인가를 전망하고 있다.

미래에는 일부 직업군의 소멸 등 불안정성 증가, 직무중심으로의 직업재편이 예측되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구직자에게 융합능력과 미래 문해력 (Future literacy)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 2019년 6월 15일 토요일 조간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연구 목적과 특징

단행본 ‘미래의 직업전망’은 2018년 연구 기획단계에서 자문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추진된 연구로 앞으로 2050년경 마주하게 될 직업 미래를 예측하고 필요한 역량을 밝혀 지금의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자 계획되었다.

모든 젊은이들은 미래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를 놓고 많은 고민을 한다. 특히 한국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 실업율의 상승, 비정규직의 제도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등 일련의 구조적 요건들은 미래세대의 직업 전망과 선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미래세대를 위해 미래 직업 예측을 통해 그들의 직업 선택을 돕고자 한 것이다.

미래의 직업전망 연구는 기존 학계의 연구가 아닌 직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에서 일하는 현재 직업인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특정 직업의 미래를 예측하도록 기획되었다. 그러다 보니 발생할 수 있는 방법론상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연구방법과 세부 목차를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각 직업별로 ‘수요·공급 변화’와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이라는 두 가지 프레임워크 내에서 미래 직업 전망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선정된 직업은 과학자, 방송콘텐츠 종사자, 초중고 교사, 농업인, 의사, 판사, 마케터 등이며 이 분야를 대상 직업군으로 약 2050년경 이들 직업의 미래전망을 실시하였다.

■ 미래직업 예측결과

대체로 불확실하고 암울한 직업미래가 예측되었다. **판사**를 예를 들면 인공지능(AI) 판사가 등장하여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이 억울한 판결은 줄어들고 전 관예우와 같은 낡은 관습도 사라지게 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오로지 입력된 정보에 따른 계량화된 판결이 과연 객관적이고 공정한가에 대한 시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교사라는 직업의 미래는 현재 지식 전달자, 상담자, 평가자, 행정담당자 등 1인 4역이 다음과 같은 4개의 역할로 재 분화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교육수용자의 요구에 맞추어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모티베이터(Motivator), 에듀테이너(Eduainer), 코치(Coach) 등의 역할이 그것이다.

농업인 또한 AI라는 핵심 기술혁명을 수용하는 그룹과 그렇지 못한 그룹간의 미래 소득격차가 예상되며 대다수의 인공지능 스킬을 습득할 수 없는 중소농들의 미래는 어두울 것으로 예측되었다.

과학자의 미래는 정부규제와의 싸움 여부에 달려있다는 전망이다. 기본적으로 과학자의 활동을 정부가 일방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관리하려 든다면 새로운 기술발전, 즉 이노베이션이 시장이 아닌 정부지원 여부에 종속되는 암울한 직업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

마케터의 경우 급격한 환경 변화 즉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세계 경제질서 변화에 적응하는 그룹과 그렇지 못한 그룹간의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인의 미래에서는 생명기술 등 과학기술의 발달로 환자 의사간의 쌍방향 소통이 중시된다고 예측하면서 전반적으로 의료산업의 미래를 밝게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 접근권 확대를 위한 의료인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 연구결론

본 연구의 함의는 첫째, 미래 직업의 **불확실성증가**이다. 4차 산업혁명의 거의

모든 직업 분야에의 발빠른 침투는 이들 직업의 미래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며 심지어 소멸의 위협까지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직무능력 중심의 직업재편이다**. 직업의 불확실성과 소멸의 위기는 다른 기회로 연결될 수 있음을 이 책은 보여준다. 특히 초지능사회에서는 직업(job)보다는 직무(task)가 중시된다. 즉 관리, 촉진, 분석, 예측 등의 직무능력이 세분화 되어 이를 다양한 부문에서 발휘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래 구직자들에게 필요한 역량은 **융합능력과 미래 문해력(literacy)**이다. 먼저 모든 저자들은 미래 직업에서 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예컨대 농업인은 단순한 경작에 관한 지식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관리 및 개발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며 판사에게는 법전과 판례 이해력과 동시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범죄의 예방지식도 요구된다. 또한 미래 구직자들은 미래에 대한 문해력을 증가시켜야 한다.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트렌드가 각 직업의 미래에 대한 미칠 영향에 관심을 가지고 탐구해야 한다.

본 연구는 미래의 직업이 단순한 ‘수입원’에서 개인의 ‘만족도’와 ‘노동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쪽으로 옮겨갈 것을 시사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다원화될 미래의 직업선택에서는 지금보다 더 **개개인의 만족도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끝>

작성자 :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유재광/허종호
유재광 (02-2224-9806, ynomade@nafi.re.kr)
허종호 (02-2224-9812, joheo@nafi.re.kr)